대한건축사협회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축사신문

회원지원센터
Tel 02)3415-6840
Fax 02)3415-6898
kira100@kira.or.kr

ISSN 2636-1078

2006년 9월 9일 창간 안내 (02)3416-6962~6 ancnews.kr 제398호 2023년 5월 23일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공공과 일원화' 및 '대가지급 보증' 제도개선 속히 이뤄져야

건축사업무 대가 정상화를 통한 건전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조성 필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건전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조성'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건축사 업계 하반기 최대 관심사는 민간대가기준 법제화, 이른바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공공과 일원화' 제도개선이다. 협회는 그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건축사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3월에는 협회가 법제 핵심과제로 추진한 건축설계 표준품셈 마련 등이 '2023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추진과제로 채택되면서 설계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가기준 일원화와 대가지급 보증으로 가격경쟁 위주 시장에서 건축물 품질 경쟁 위주 시장으로 전환 유도해야

협회가 현재 추진하는 건축사법 개정 방향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일원화 ▲건축주의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제도 도입이다.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일원화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한 대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업무이행보증에 따른 건축주의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상호 동등한 계약체결을 유도, 건축설계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배경에는 민간 건축물 대가기준 부재로 인한 과당경쟁, 저가수주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저하, 그리고 대가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폐지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운용되고 있으나, 당초 정책 목표와는 달리 건축시장의 생태계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다.

게다가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업계 전반에 젊은 인재 유입이 어렵고 기존 건축인력마저 이탈하는 현상이 초래되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건축학과 지망은 거의 최저 수준이며, 건축학과 졸업생도 건축분야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4면 계속

▶ 해외의 대가기준 비교표

구분	대가기준	소관부처	근거 법령	주요 내용
독일	HOAI (Honorarordnung für Architekten und Ingenieure)	연방 건축부	「건축사법」	– 공공 및 민간 건축 프로젝트에서 건축설계 대가가 공개적으로 공고되며, 건축사들은 이를 참고하여 대가 산정
일본	「建築設計報酬規程」 (건축설계보수규정)	국토교통성	「건축사법」	– 건축설계의 종류(주거, 상업, 문화 등) 와 크기(면적, 층수 등) 등에 따라 설 계비 요율 규정
영국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 Plan of Work	–	–	– 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대가표를 기 준으로 대가 산정
싱가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부 계약 요건	–	–	–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설계 대가 산정 기준 제시
미국	–	–	–	– 건축사협회에서 매년 대가 통계 제공

대한건축사협회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대응 활동에 협회 소속 전문가 참여해야"

"사고 조사 때 건축사 참여해 원인 밝히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 필요"

근본 원인으로 '선분양 후시공 제도' 잘못 지적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장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뉴스1

지난 4월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지붕 층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일어났으며, 심야에 사고가 발생한 탓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으로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는 사고발생 이후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공사의 정황이 포착됐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도 한몫 했다. 5월 9일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진행하던 정밀조사도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사고 발생 10여일이 지나고, 국토부의 발표가 있던 날인 5월 9일 "시공사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며, 건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4면 계속

사 설

민간 대가기준 확립하여,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일하자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적어보며 연관성을 따져보면, 모든 사항이 민간 설계대가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연결된다. 설계품질이 저하되고 일부 도서가 생략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공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기준이 되어야 하는 설계도서가 허가에 필요한 기본설계도면까지만 존재하고 실시설계도면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이 열악해지며 건축학과 졸업생은 건축분야 취업을 기피하게 되어 건축사보 인력은 감소하며 건축학과 학생들의 열정까지 식을 수 있다.

다양한 각각의 업무마다 설계대가를 정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축사들이 많다. 공사비요율방식이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는 금액과 현재 통용되는 평당 설계대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계산된 금액으로 제안하자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봐, 평당 설계대가를 적용하자니 너무 낮은 금액이어서, 매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건축사들의 업무 결과는 점점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가기준을 정하여 그것이 최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건축사의 고민과 시간이 더해진 건축 작품들은 그 노력만큼이 더해진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건축이 문화로 자리 잡고 K건축이 세계 속에 인정받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낮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의하면 잘못된 것일 수는 없다. 하지만 효율을 가장한 업무의 생략은 우리 사회가 도면이 없어도 시공자가 알아서 시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용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도면이 생략되는 오류는 결국 시공사의 저가수주와 저품질 시공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건축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의 시작부터 끝까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건축사가 건축행위 전반이 어떻게 진행되며 설계도서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건축주에게 설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민간 대가기준과 건축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분야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보증 되는 것처럼, 설계대가를 완납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낮은 설계대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하기도 어렵다. 먼저 사용승인 시까지 지급할 비용을 남겨두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실시설계도서가 제출될 때 모든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착공신고 시 설계자가 설계대가 은행 이체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외에도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 지급이나, 업무 중단 시 정산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건축사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및 지급보증에 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며, 이것의 시행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 론

사소한 에피소드 적-청

김동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양평에 살게 된 지 5년이 된다. 개업한 지 14년째…. 개업하고 처음 구매한 차를 10년째 몰고 있다.

차를 몰고 5년쯤부터는 잔고장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는 몰던 차를 빨리 처분하고 좀 더 안전한 차, 본때 나는 차를 몰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기대감에 부풀었다. 결국 때를 놓치고 거의 10년을 몰게 되었고 주행거리가 약 35만 km를 찍었다. 주위에서 속마음도 모르면서 계속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가 잦았고 차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집을 양평군 옥천면에 짓고 나서 출퇴근 거리도 그전보다 멀어지고 연료비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쯤부터인가 차량 연비가 계속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체크해 보았다. 리터 당 20킬로미터는 기본이고 잘 나올 때는 22킬로미터를 넘는 경우도 간간이 있었다. 회사에서 집까지 약 50킬로미터가 되다 보니 연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같은 차종으로 차를 바꿀까 말까 고민도 하게 되었다. 누추한 차를 몰고 다니면 수주가 어렵다는 편견이 이미 사라진 때라, 잘도 굴러가고 고칠 것 다 고친 차량이라 더 이상 고장 날 것도 없는데 36만까지만 타볼까? 농담처럼 생각했던 것이 벌써 코앞까지 온 것이다.

굳이 36만이냐고 한다면 차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12만 단위로 엔진 내부 벨트를 갈아야 하는 내연기관차의 속성상 가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점이 12만 단위가 된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48만을 도전해 볼까 마음이 바뀌고 있다. 오히려 '누추한 오래된 차가 환경을 살리는 차량이 되는가?'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5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고급 차량을 선전할 때 기능적인 성능을 내세우기보다 환경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었는지 홍보한다고 들은 기억이 난다. 그런 차를 구매한 환경주의적 입장의 오너가 차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과거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건축자재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 파괴가 된다는 논리는 과거의 일반적으로 통용된 이야기이지 목재를 잘 사용할수록 탄소중립 정책과 지구 환경을 살린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콘크리트구조 건축은 생산과정에서 많은 지구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것처럼 차를 일 년이라도 더 탈 수만 있다면 더 몰고 다니는 것이 지구 환경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나름의 생활철학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생각의 변화는 전원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 살고 있는 전원생활인으로서 당연한 것이 되었다. 항아리 바비큐를 직접 해 먹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사실 엔진 소리가 클 뿐이지 육안으로 보는 매연의 정도와 다른 기능은 크게 문제가 없다. 엔진 소리 큰 것도 큰 지장을 못 느끼는 것은 아주 고가의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차는 소음 순위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 마음속에 있었던 청과 적은 어떤 의미도 없다.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멀리 보는 삶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시크릿]이란 책이 서양적 종교색이 난다고 안 읽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더 해빙]이라는 책은 동양적 종교색이 나니 읽어보라고 권할 필요도 없다. 두 책은 비슷한 자기개발서인데 굳이 한 권을 권할 이유는 없고 둘 다 읽기를 권하고 싶고 그 어떤 선택도 본인이 하는 것이다.

마당에 앙상한 잎이 하나도 없던 90센티미터 크기의 묘목 한 그루가 2년의 기다림을 버티다가 올해 겨우 초록 나뭇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을 못 기다리겠는가?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그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지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세상에 빛을 못 보고 있을 뿐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명확히 정리된다면 건축도 우리에게 큰 희망과 만족감을 싹 틔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과거에 희망찬 대가들의 디자인을 보고 따라 하고 싶었던 디자인보다 내 속에 숨은 디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고 내놓을 만한 것이란 것을 느낄 때, 적과 청의 극단적인 선택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색을 가진 각자의 건축이 모여서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는 건축사의 길을 갈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E&E 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 출범…산업발전·동반 성장 기반 마련 협력

위상 및 가치제고, 이슈 발굴과 제도개선 추진 나서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협회가 산업발전·공동 성장을 위한 포럼을 출범시켰다. 사진은 지난 15일 가진 포럼 출범식 후 공동대표를 맡게 된 각 협회장들이 업무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가 유관 협회들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함께 관련 산업과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4개 협회는 건축·엔지니어링 산업의 역할 재정립과 우수 건축·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5월 15일 E&E 포럼(Engineering&Engineers Forum) 출범식을 개최했다.

포럼 출범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포함한 공동대표 4인과, 이복남 서울대 교수 등 포럼 고문단, 이상호 포럼 운영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정태화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박춘하 대한건축사협회 전 부회장 등 포럼 운영위원들이 함께 했다.

E&E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협회들은 젊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과 양성이라는 공통 과제와 한편으로 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저평가 되고 있어, 위상과 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협회들은 포럼 개최를 통해 공통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업의 혁신과 우수 건축·건설기술인 양성을 통해 국가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과 목표로 삼았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건축·건설기술인의 역할과 비중이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관점이 기대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출범한 E&E 포럼을 통해 건축·건설기술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우수한 건축·건설기술인 양성과 미래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간담회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일원화(민간대가기준 법제화), 건축주의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제도 도입 건의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일원화(민간대가기준 법제화) ▲건축주의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폐지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운용되고 있으나,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건축시장의 생태계 혼란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우수한 인력의 영입이 어렵고 기존의 건축 인력마저 이탈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건전한 건축설계시장을 조성하고 우수한 건축인력 양성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과 지급보증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슈 진단 건축물 해체제도 현황과 문제점 _ '권광태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중앙위원' 인터뷰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감리 주체는 '건축사'…건축사 주도 하에 '구조안전성' 사전 검토·확인돼야

건축물 해체, 건축사 업무 중 중요한 한 부분

협회 내 '(가칭)해체위원회' 신설돼 회원업무 지원해야

설계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해체 역시 건축물의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전반에 대한 통합·전문직 지식을 가진 건축사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장비투입 등 효과적인 해체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사진은 권광태 건축사가 장비투입을 제안해 이뤄진 해체현장. 사진=권광태 건축사

건축사는 건축물의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전반에 대한 통합·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협력을 받아 설계를 하고 전체적인 통합·조율을 해 건축물을 완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건축물은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유지관리되며, 생을 다하게 되면 건축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와 이를 토대로 한 감리업무를 통해 멸실된다.

건축물 해체와 관련해 5월 18일 본지와 인터뷰를 한 권광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중앙위원은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감리 주체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축물 해체가 설계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전반적인 분야를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독물을 사용했던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만이 유독물의 저장과 사용에 대한 루트를

권광태 건축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거 기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시 먼저 건축사가 주체가 돼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구조용역 항목이 포함돼 과다 청구될 수 있어서다. 권광태 건축사로부터 건축물 해체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현재 건축물 해체제도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서 공사비 산정과 공사 계약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른 산출근거·내역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해체 공사는 대체로 해체공사 계약 후에 해체계획서 작성, 감리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비 산정과 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신축공사와 같이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및 허가 ▶해체 공사 계약 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Q. 해체계획서 작성 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 관련 의견이 있으시다면.

현재 해체계획서 작성 시 대두되는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는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구조안전계획)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도 포괄적으로 '구조안정성 검토' 용역이 발주되는 까닭에 구조용역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축사 주도 하에 '구조안전성'이 사전에 반드시 확인되어 비계 부분 등 필요한 부분만 검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픈 점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와 파악이 건축사 주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해체감리자는 해체계획서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안전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체장비의 종류에 따른 해체 성능을 파악하고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기의 변화, 안전성, 환경(소음, 진동,분진)을 명확히 판단하여 유연하게 현장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Q. 협회에 바라는 점은.

건축물 해체는 법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중 중요한 한 부분으로,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해체부분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축적하고, 타 단체와 협력 또는 대응 할 수 있도록 (가칭)건축물 해체위원회 등 조직을 갖춰 회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 기자

▶1면〈'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공공과 일원화'...〉에서 계속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전한 건축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우수한 건축인력 양성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및 지급보증제도가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타 산업 사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분야는 2017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마련해 공공·민간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분야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법제화돼 운영 중이다. 해외 선진국도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대가기준과 건축설계 대가 지급보증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독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미국 모두 건축서비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한 대가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대가기준을 마련해 운용중이다.

건축물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건축서비스산업
지속 성장 기대

협회는 "대가기준 일원화와 대가지급보증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1면〈대한건축사협회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대응 활동에 협회 소속 전문가 참여해야"〉에서 계속

GS건설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철근 30여개가 빠진 것으로 확인했다. 시공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천장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 붕괴 방지를 막는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이다. 건축물의 층을 나누게 되는 슬래브는 수평으로 철근을 깔고,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는 옵션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필수사항이다.

GS건설이 전단보강근 누락에 따른 절감 원가가 1000만 원 안팎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단순과실로 치부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GS건설은 지난 3년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가 573건으로 가장 많은 건설사다. 이 중 GS건설의 세부 하자 건수로 인정된 건수는 2,818건이다. 하자 건수 역시 건설사 중 최다다.

GS건설은 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 "설계·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 정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LH는 "(해당)사업장은 시공책임형CM(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자가 되어 설계검토를 수행, 약정된 공사비 안에서 공사를 진행) 방식으로 설계단계부터 시공사의 자체기술 등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건축계 한 관계자는 "진짜 원인은 선분양 후시공 제도 때문이다"며, "이로 인해 입주날짜가 공사현장의 대전제가 되면서 영하의 날씨에도 레미콘 타설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유사사고는 매번 이렇게 재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 제도 변화에 대한 시도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번 사고 조사와 관련해 전문가(건축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이를 통해 원인 파악과 유사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금번 건축공사 붕괴사고의 경우 무량판구조 슬래브의 펀칭전단 파괴 등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다양한 붕괴 원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사, 의견수렴, 토론회 등 사고 대응을 위한 각종 활동에도 협회 소속 전문가(건축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알아봅시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 정보 사이트 <BEST 10>

건축사와 건축 전공자들을 위한 정보가 한 눈에!

"건축 전문가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사이트 없나요?", "지도와 건축물 정보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열람할 수 있을까요?", 처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보면 사이트를 분석하거나 사례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집합소' 같은 게 있다면 고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건축사들이 즐겨 찾고, 도움 받을 수 있는 10가지 유용한 웹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한국건축규정e시스템
한국건축규정.kr

한국건축규정e시스템은 크게 ▲건축법령체계 검색 서비스 ▲개별 건물에 대한 정보 검색 ▲건축 법령체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건축법령체계 검색 서비스는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 건축규제에 속성정보를 부여해 건축 목적을 중심으로 건축 행정절차와 생애단계를 고려한 검색 체계 서비스를 제공(3단계 구축)한다.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절차규정 등의 검색이 제공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개별 건물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건축 관련 전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면적, 층수 등의 상세 검색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법령정보에 대한 체계 서비스가 이뤄진다.

건축 법령체계 검색 서비스는 모든 건축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례 검색과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② 토지이음
www.eum.go.kr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미래의 도시계획, 현재의 규제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이다. 2021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해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확인하고, 도시계획 정보를 통해 바뀌는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www.auric.or.kr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건축도시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분산된 연구·교육·산업 정보의 통합관리, 고부가가치의 국외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지는 건축도시 분야 온라인 전문정보 유통원이다. 주요 서비스로 문헌·동향·건축물·인물 서비스가 제공된다.

④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www.aurum.re.kr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자료와 정책정보·학술연구정보의 DB를 구축해, 건축물과 공간환경 정책수립·사업추진을 위한 지적토대를 제공한다.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 녹색건축물 활성화·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도 지원한다.

⑤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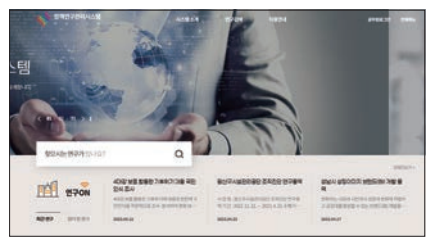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한 사례이다. 국가 공간정보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해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정보기본도, 수치지형도, 지적도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⑥ 국토정보플랫폼
map.ngii.go.kr/ms/map/NlipMap.do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정보 활용과 유통을 담당하는 대표 서비스 창구이며, 국토정보맵은 다양한 지도자료와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개방서비스이다. 서비스를 통해 수치지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국가기준점, 북한 지도 등 다양한 지도 자료를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⑦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포털
map.vworld.kr/map/maps.do



건물의 정보(명칭, 용도, 층수, 구조, 면적, 높이, 용적률, 건폐율, 연면적, 대지면적, 사용승인 일자)뿐만 아니라 3D로 실제 스케치업을 올린 것 같은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접해왔던 국가공간정보(지적정보, 건축물정보 등)도 실감나는 3차원 기반 가상세계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⑧ 국토교통 통계누리
stat.molit.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는 국토/도시, 주택, 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등 7개 분야의 국토교통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서비스 포털이다. 국토교통 통계 172종을 시스템화했고, 통계자료 현행화 및 통계청 포털과 연계해 자료를 제공한다.

⑨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정부의 정책연구 수행과정을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 여러 기관의 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연구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국민은 연구보고서를 쉽게 빠르게 검색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연구 수행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며, 연구품질을 높일 수 있다.

⑩ 통합인허가 지원서비스
ipss.go.kr/iuweb/view/ipssMain.html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은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변경→준공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박관희 기자

FOCUS 대안캐드 비교분석

건축 설계 업무에 적합한 '대안 캐드'를 찾고 있다면?

건축사업계, AutoCAD 라이선스 가격 인상 등 사용 정책 바뀌면서 대안 캐드 관심

기술 경쟁력 강화한 대안 캐드, 호환성·편의성 높이되 비용은 합리적

여전히 국내 CAD 업계의 시장 점유율 1위는 Autodesk의 AutoCAD다. 1982년 국내 첫 출시 이후 성능·안정성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설계 작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다. 하지만 Autodesk는 2016년 영구 라이선스 종료와 2020년 네트워크 버전의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또한, 매년 라이선스 가격을 인상하고, 올들어서는 사용정책을 '네트워크 라이선스'에서 '싱글 라이선스'로 본격 전환하면서 건축사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Autodesk의 정책 변화로 건축사 업계는 대안캐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저렴한 비용은 물론 작업 안정성과 빠른 작업시간 등의 기술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utoCAD 사용자의 77%가 대안 캐드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꼽은 대안캐드 선택요건은 ▲기본도면 수용여부 ▲저렴한 가격 ▲성능과 기능의 우수함 ▲원활한 유지보수 순이다. 실제로 대안 캐드의 점유율은 2017년 10%대에서 2020년 20%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사신문은 다양한 대안 캐드가 시장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고, 건축 설계업무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비교 정리해 봤다.

◆ 국내 개발 대안 캐드

일찌감치 국내 소프트웨어사들은 대안 캐드 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십여 년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해 온 만큼 충분한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건축 설계 분야에 맞춰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대안 캐드가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의 '아키디자인'은 국내 건축실무에 최적화된 건축설계 특화 캐드다. 아키디자인은 세움터 납품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한 번에 여러 장의 도면을 인쇄하는 연속 출력 기능과 축척에 따라 글씨 크기와 해치 간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 축척 기능과 같은 차별화 기능이 기본 탑재됐다. 또한 구적도, 문, 단열재 등을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건축설계 특화 기능(Extention Tool)을 제공해 작업 시간을 약 5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인텔리코리아의 'CADian Professional'은 건축·토목 분야(AEC)에 특화된 설계 응용 프로그램인 '드림(Dream)'과 '피라미드(Pyramid)'를 지원함으로써 건축설계 엔지니어들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AutoCAD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별도의 학습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중 출력, 엑셀 연동, 문자 일괄 변환, 3D솔리드 모델링 지원과 타 CAD 파일 호환 등을 지원한다. 신제품 출시 후 1년간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스테크놀로지의 '직스캐드'는 AutoCAD의 폐쇄성과 미비한 기술지원을 보완했다. 가격은 낮추되, 처리 속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범용 캐드다. 직스캐드는 다중 CPU 사용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설계 환경을 제공한다. DWG 100% 호환은 물론 AutoCAD의 명령어, LISP 등을 완벽하게 호환한다. PDF 변환, 다중 출력, 엑셀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토목, 건축 및 각종 유틸리티도 180여 개 기능을 개발해 탑재했다. 영구버전과 1년 임대 버전 등이 있다.

◆ 해외 수입 대안 캐드

해외에서도 AutoCAD를 대체하기 위한 캐드 개발이 활발하다. 저렴한 가격과 AutoCAD와의 호환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수입되고 있다.

중국 ZWsoft에서 개발한 '지더블유캐드(ZWCAD)'는 2006년 첫 버전 출시 후 전 세계 90만 유저가 사용 중이다. 자체 개발 엔진을 바탕으로 AutoCAD와 유사한 UI를 제공하며 모든 2D CAD와 DWG를 호환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하드웨어 가속화로 유연한 워크 플로우를 제공한다.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마우스 제스처로 커맨드 동작을 지원, 음성 어노테이션으로 마킹, 텍스트 정보의 바코드 및 QR코드 변환 등의 기능도 있다.

'지스타캐드(GstarCAD)'는 중국 Gstarsoft 사가 2003년 최초 버전 출시한 이후 꾸준한 업데이트로 현재 국내 20만 명이 사용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만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GstarCAD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가 가능해 사용자의 작업 특성에 맞춘 설정이 가능하다. 설계 능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도면 편집 기능도 있다. GstarCAD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플러그인인 Collaboration을 활용해 DWG 기반 협업 설계 시스템도 제공한다. 기술지원은 무료지만 버전 업그레이드 시에는 별도 비용이 추가된다.

프로지캐드(ProgeCAD)는 1999년 이탈리아 Progesoft 사에서 개발했다. 70개국에 13개 언어로 번역돼 55만 명의 유저가 사용 중인 범용캐드다. AutoCAD와 동일한 화면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AutoCAD의 풀 라이선스 기능을 지원한다. 최신 버전에서는 객체 ZOOM in/out 속도와 인쇄 속도가 기존 대비 약 2배 향상됐다. VIEWCUBE로 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등 새로운 기능도 추가됐다. 프로페셔널 단일 버전 구성이며, 최신 버전 구입 시 차기 버전의 업데이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조아라 기자

▶ 국내사 개발 캐드

제품명	아키디자인(ArchiDesign)	캐디안 프로(CADian Professional)	직스캐드(ZYXCAD)
제조사	마이다스아이티	인텔리코리아	직스테크놀로지
특징	세움터 납품 편의성을 극대화한 국내 건축실무에 최적화된 건축설계 특화 캐드	건축·토목 분야(AEC)에 특화된 설계 응용 프로그램인 드림(Dream), 피라미드(Pyramid) 지원	가격은 낮추되, 처리 속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범용 캐드
기능	· DWG, DXF 호환 · 연속출력, PDF 변환, 대량 객체편집 가능 · LISP&VISUAL LISP 호환 · 사용자 도면 네트워크 · 건폐율 및 용적률 실시간 검토 · 필요 주차대수, 식재 수량 등 자동 산정 · 300여 개 건축설계 템플릿 제공	· DWG 호환 · R14~최신 버전까지 양방향 호환 · LISP 적용 가능 (VBA, ADS 언어 지원) · 엑셀표, 3D 호환 확장자(STEP/IGES) 내보내기·불러오기 지원 · 배치플롯 다중 인쇄 · 깨진 폰트 자동 변환 · 3차원 모델링 기능 탑재(ACIS 3D)	· 다중 CPU 사용 · DWG 호환(DXF, DWF, DWT) · AutoCAD 명령어, LISP 호환 · PDF 변환, 다중 출력, 엑셀 연동 등 기능 제공 · 드림 기능과 동일한 워스 기본 탑재 · BIM 필수 IFC 파일 호환 · 토목·건축 등 각종 유틸리티 180여 개 기능 개발·탑재
비용	· 아키디자인 1년 라이선스 600,000원(부가세 별도)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사는 공동구매 할인가 적용 시(24년 8월 31일까지) 1년 라이선스 600,000원 3년 라이선스 1,200,000원 5년 라이선스 1,700,000원 (부가세 별도) *아키디자인은 네트워크 라이선스 방식 *네트워크 라이선스: 구매한 수량만큼 서버 PC에 설치 후 제한 없이 동시 접속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 CADian Professional 영구 라이선스 1,400,000원 1년 라이선스 400,000원 (부가세 별도)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사는 공동구매 할인가 적용 시(24년 3월 1일까지) 영구 라이선스 590,000원 1년 라이선스 350,000원 (부가세 별도)	· ZYXCAD Standard 영구 라이선스 1,450,000원 1년 임대 라이선스 460,000원 · ZYXCAD Professional 영구 라이선스 1,950,000원 1년 임대 라이선스 815,000원 (부가세 별도)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사는 공동구매 할인가 적용 시(2024년 1월 16일까지) · ZYXCAD Standard 영구 라이선스 950,000원 1년 임대 라이선스 350,000원 · ZYXCAD Professional 영구 라이선스 1,450,000원 1년 임대 라이선스 400,000원 (부가세 별도)
A/S	유선, 원격대응 등 기술지원		

▶ 해외사 수입 캐드

제품명	지더블유캐드(ZWCAD)	지스타캐드(GstarCAD)	프로지캐드(ProgeCAD)
제조사	ZWsoft	Gstarsoft	Progesoft
특징	하드웨어 가속화로 유연한 워크 플로우 제공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CAD로, AutoCAD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AutoCAD와 동일한 화면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AutoCAD의 풀 라이선스 기능 지원
기능	· DWG, DWT, DXF 호환 · 동적 기능과 동일한 스마트 블록 및 포인트 클라우드 제공 · 건축·토목 등 분야에 맞는 ZWCAD 응용 프로그램 제공 · LISP 적용·사용 가능 · AutoCAD 유사한 UI 제공 · 음성 어노테이션 마킹, 마우스 제스처 커맨드 동작 가능	· DWG, DXF 호환 · 2D 생성·수정 가능 · 출력 기능 (STB, CTB) · 3D 보기 · LIPS, VBA, GRX 지원 · MNU, MNS, CUI 지원 · 동적블록 · 3D 생성·수정 가능 · Render	· 티가커널 엔진과 프로지캐드 엔진 · DWG 호환(DWG, DXF, DWT) · AutoCAD PGP 파일 지원(동일 명령어, 단축어 사용) · 포맷 호환 (LGES, STL, STEP, SOLIDWORKS 등 파일 지원) · AutoCAD LISP 호환
비용	· ZWCAD Single LT 1,200,000원 · ZWCAD Single FULL 1,850,000원 · ZWCAD Network LT 1,560,000원 · ZWCAD Network FULL 2,210,000원 (부가세 별도) 할인가 별도 문의	· GstarCAD Standard(Alone) 900,000원 · GstarCAD Standard(Network) 950,000원 · GstarCAD Professional(Alone) 1,150,000원 · GstarCAD Professional(Network) 1,200,000원 (부가세 별도) 5+5 프로모션 진행 중. 별도 문의	· ProgeCAD Single 900,000원 · ProgeCAD Network 1,100,000원 (부가세 별도) 할인가 별도 문의
	* 독립형 라이선스(Alone, Single) : 한 대의 PC에 1개의 라이선스를 설치하는 방식 * 네트워크 라이센스 : 구매한 수량만큼 서버 PC에 설치 후 제한 없이 동시 접속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A/S	유선, 원격대응 등 기술지원		

농막도 내부 휴식공간 바닥면적 25% 초과하면 '주거용'…'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농막 절반 가량 불법 증축 또는 목적 외 사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조치의 일환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관희 기자

건축 질의회신 Talk

건축신고시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첨부 여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21조	-	23.4.14

질의 요지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및 도서에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및 도서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이 포함됨. 「건축법」 제21조제6항에서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유지되고 있음.
「건축법시행령」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감리자가 지정되는데 비해 건축신고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착공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의 높이 산정 기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0.7.20

질의 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중 최고 높이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에서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지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는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높이가 다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여야 함.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 건축물 용도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13.8.21

질의 요지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같은 건축물"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상당히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있는 이상 "같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각 건축물의 학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건축사업(建築士業) 규제, 각종 부당행위 제보 바랍니다

건축사업(建築士業)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업무수행 때 부딪히는 불합리한 법규나 관행·규정, 건축설계공모 관련 비리, 자격대여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은 기획 시리즈로 엮어 보도할 예정입니다.

(02)3416-6962~6 news@kira.or.kr

오는 6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확대, 건축사 등 전문인력 확보 경쟁 불가피

울산연구원, 건축법 개정으로 노후건축물 비율 높은 구·군에도 센터 설치…인력난 가중 전망

▶ 필수 전문인력 자격 취득자 수

구분	'16년까지 누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까지 누적 취득자수	'17~'21년 연평균 취득자수
건축사	20,618	607	752	1,090	2,297	760	26,124	1,101.20
건축구조기술사	1,010	12	47	52	35	48	1,204	38.8

자료=건축사) 국토교통 통계누리, 울산연구원 재인용,
건축구조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연구원 재인용

경주지진(2016년), 포항지진(2017년) 당시, 규모 5.5~5.8의 강진으로 벽면 균열, 기둥 파손, 천장 붕괴 등 건축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추진됐고, 2021년 발생한 광주 해체건물 붕괴 사고로 2022년부터 전국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운영에 있어 낮은 임금 수준과, 임기제 공무원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전문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기준 확대일(6월 11일)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울산도시환경브리프'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가 이뤄지면서 전문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오는 6월부터는 추가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해 전국적인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건축법 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가 확대된다. 기존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 더해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노후건축물 비율 27.8% 이상)인 인구 50만 명 미만의 구·군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기준, 58개 지자체가 추가설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화재 등 기준 기술적 검토를 위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각 1명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업체 대비 낮은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의 원인으로 필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자격 취득자 수가 제한적이라 채용이 더욱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며 "의무설치 기초지자체 간 센터 공동 설치·운영을 통해 전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향후 센터 안착 시에는 인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센터운영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관희 기자

6월 16일까지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 실시…해체계획서 보완사항 이행 여부 등 점검

▶ 개정법령(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전후 비교

구분	제도 시행 전 ('22.8.4. 이전 허가·신고현장)	제도 시행 후 ('22.8.4. 이후 허가·신고현장)
주요 관리대상 (허가대상)	주요구조부 해체 또는 건축물 전체해체로서 일정규모* 이상 * 연면적 500m2, 높이 12m 또는 4개층	공사장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등까지 확대 * 버스정류장 여부 등 고려, 규모 무관
허가권자 계획검토	<신설>	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
	<신설>	해체계획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의무화 * 공법, 작업순서·면적, 장비 등의 변경
계획수준 (해체계획서작성)	허가대상만 전문가 검토	허가대상은 전문가 작성
	신고대상 작성자 자격 제한 없음	신고대상은 전문가 검토
감리수준 (현장관리·감독)	상주감리 의무대상 기준 부재	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감리자 교육 : 재량규정	감리자 교육 의무화
	<신설>	주요작업 기록, 감리일지 등록
허가권자 현장관리	착공 전 허가대상 현장점검 안전우려 시 작업중지·조치	착공 전 허가대상 현장점검 작업중지·조치 권한 강화 (의무규정 명확화, 권한 강화)

정부가 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함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국토교통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경우에는 10개소를 선정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달 중순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특수구조건축물(공업화 박판 강구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

해체는 롱붐 장비를 통한 원거리 압쇄 공법을 적용해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순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화재로 건축물의 역학적 성능이 저하돼, 장비탑재 시 붕괴 우려가 높아 원거리 해체에 들어간 경우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지하외벽 해체 시 위험 요소인 외부 토압 영향과 화재로 인한 건물 전반의 성능 저하를 고려해 원거리 압쇄공법을 적용하는 등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했다"며 "해체계획서 보완사항 이행여부와 세부 안전계획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롱붐장비를 통한 원거리 압쇄 공법으로 해체되고 있는 쿠팡 덕평물류센터
사진=국토교통부

현장점검에서는 해체장비 변경 등 해체계획서 보완사항의 현장관리·이행 적정성,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또 가설구조물 설치, 화재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한 건설기계 운영도 점검대상이다.

기타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순서·방법 등 세부 안전계획 이행 여부와 지하층 외벽에 대한 토압 경감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 해체계획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의무화됐으며, 허가대상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리 역시 허가대상은 상주감리와 감리자 교육이 의무화 됐으며, 주요 작업 기록과 감리일지를 등록해야 한다.

박관희 기자

해외건축 NOW - FRAMEWORK FOR DESIGN EXCELLENCE

삶의 조화를 위한 AIA 설계 프레임 워크

건축사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대외적 상황 속에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건축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달라진 환경 변화에 미국건축사협회(AIA)는 '탁월한 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건축사들과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건축사신문도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며 확장된 시각을 나눠보려 한다.

일곱 번째로 '웰빙을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공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조화를 위한 설계 디자인적 고민을 담았다.

설계 디자인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할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더 큰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람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사진=AIA

⑦ 웰빙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Well-being)

웰빙(well-being)은 개인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이 균형은 단순히 질병이나 신체적 건강 상태를 넘어 개인 삶의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동시에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공간이 주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좋은 설계 디자인은 공간 내에서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AIA는 조명, 기온, 공기 질, 정신적 사회적 요소, 음향, 움직임 등 다채로운 요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먼저 조명이다. 자연광 부족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풍부한 채광 확보를 위해 상면과 측면 등에 일광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건물 구성을 동서향으로 할 경우 눈부심은 줄이는 대신 태양열은 획득할 수 있다. 눈부심과 일광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눈부심은 과다한 빛이 문제가 아니라 밝고 어두운 면 사이의 광택 혹은 반사의 문제인 만큼 차광 장치를 더한다면 적절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신체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정 실내 온도는 공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태양열 획득과 제어, 단열재 최적화, 창과 팬의 균등한 간격 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실내외를 금연으로 지정하고, 창문과 같은 환기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난연재, 포름알데히드 등 가스를 배출하는 화학 물질의 사용도 지양하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환기 시스템과 창문, 문 근처를 유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소음을 통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소음은 건축 환경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불만사항 중 하나다. 소음이 클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며 신체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설계에 앞서 시끄러움, 조용함, 혼합 등을 색상 코드화로 사운드 맵을 만들고, 과다한 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음은 흡음재 사용 여부에 따라 감소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설계 지침과 비교해 공간에 맞는 최적의 요소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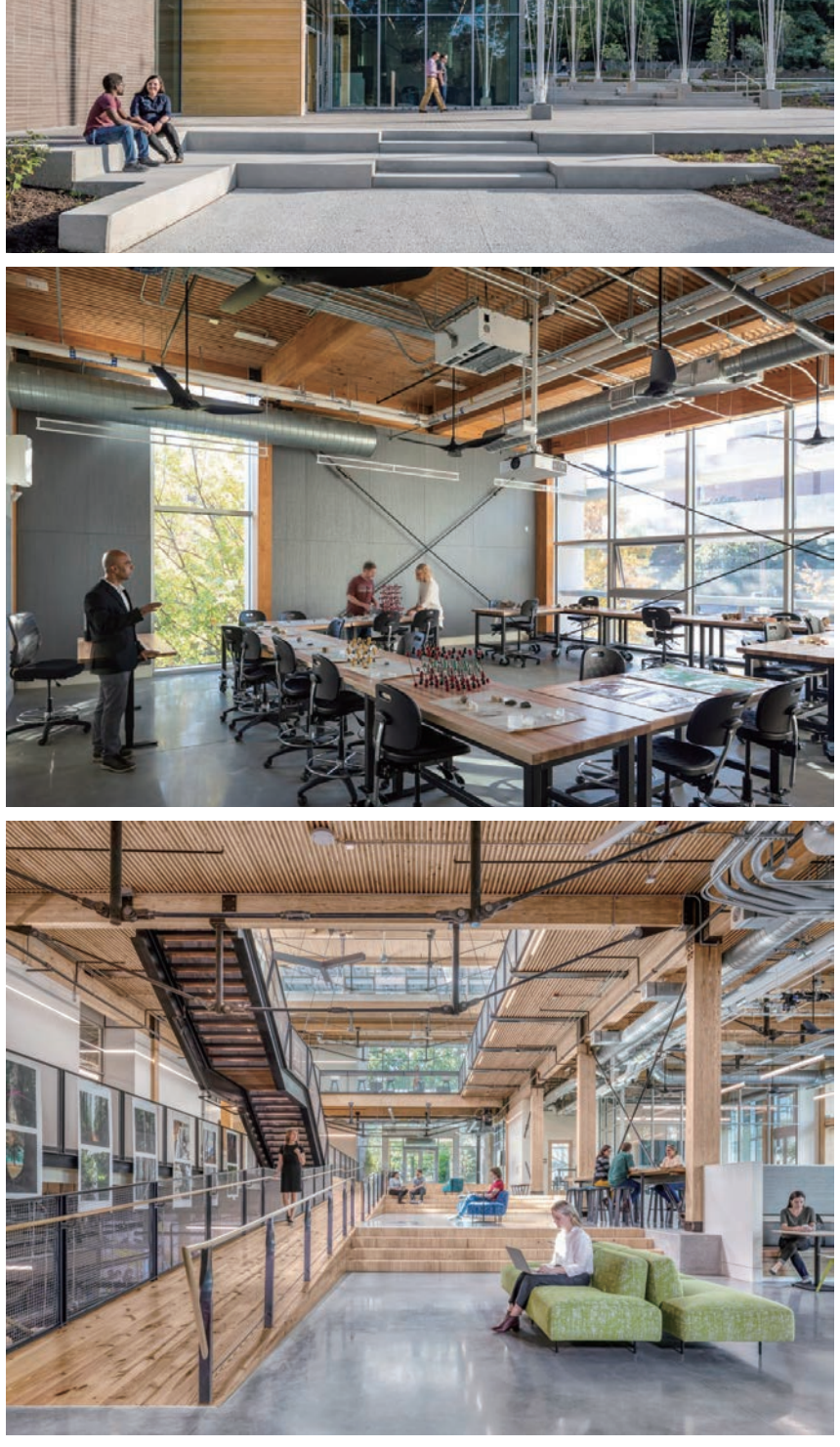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도 사용자가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공간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 누구나 건물 내부로의 접근과 이동이 용이해야 하며, 공간 내에서도 가구와 좌석을 배치하는 유연함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정신적이고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야 하며, 사용자 개인이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경제력, 종교 등을 떠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향해야 한다.

AIA는 조지아 공과대학의 Keneda가 위와 같은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 꼽았다. Keneda는 미국 남부의 디자인 요소인 베란다를 살려 건물 냉방 부하를 줄이고 행사를 위한 야외 그늘 공간을 만들었다. 건물 중앙 아트리움은 이 건물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공간 전체에 채광이 들도록 설계됐다. 그러면서 눈부심을 줄이고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요소를 곳곳에 설치했다. 남쪽 입면에는 수평으로 음영을 맞췄고, 동쪽 파사드에는 자동 외부 블라인드로 채광을 조절한다.

탄소 감축을 위해 건물의 기본 구조로 목재를 선택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목재는 인근 건물의 인양 목재에서 용도를 변경했다. 벽돌도 100% 재활용했다. 그 외에도 폭풍에 쓰러진 나무를 재료로 활용했다. 목재와 같은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건물이 다목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더불어 방향 하중을 견디기 위해 목재와 강철을 적절하게 섞어 강도를 강화했다. 반면 콘크리트 사용은 최소화했다. 내후성(耐朽性)이 중요한 외장재의 경우 강한 재료에 고성능 코팅을 적용했다.

AIA가 Keneda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이오필릭스 디자인(Biophilic design)을 적용한 점도 있다. 바이오필릭스 디자인은 자연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접근법으로, 생명체가 가진 기능과 구조를 모방해 공간을 디자인했다. 쓰러진 나무에서 건져낸 라이브 에지 목재 가구, 노출된 목재는 건물 전체의 구조, 천장, 바닥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후추나무의 결을 살린 아트리움은 실내에 옥외 광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두 개 층에 걸친 벽화로 멋스러움을 살렸다.

Keneda의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 태양광 캐노피는 건물의 연간 에너지 수요의 100%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초과 생산된 분은 다른 캠퍼스의 건물로 보내 에너지 부족분을 보충한다. 태양광 캐노피는 태양 에너지와 빗물을 모으는 동시에 남부 애틀랜타의 여름 더위를 식히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늘이 외부 전동식 블라인드와 함께 일광을 세심하게 제어해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또한 건물 내부에 실외공기전용시스템(DOAS)과 계폐 가능한 창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게 했다.



사진=AIA

건축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AIA가 제안하는 열 가지 프레임은 큰 틀에서 사람을 위한 디자인, 자연 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디자인을 아우르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자원을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조아라 기자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다음달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단계적 시행

다가구·오피스텔도 대상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앞으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의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경우 6월 중으로 즉시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조아라 기자

흙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흙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인터뷰 35년 경기도건축사회 고양지역건축사회 애환 함께한 '**이미자** 사무국장'

"의무가입 복원돼 기쁘고 자랑스러워…건축사 한목소리 내고 권익·위상 다 함께 높여나가길"

최초 회원 10명에서 現 132명 지역건축사회 발전 함께해 보람

건축사 성장할 수 있는 토양 마련, 협회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

"경기도지부 의정부분회에서 분리돼 1986년 1월 설립 당시 처음엔 10명의 회원이 현재는 132명에 달합니다. 입사했을 땐 협회가 의무가입이었지만, 2000년 임의가입으로 바뀌며 '설계도서검토제'가 사라지고 건축사연금제도 역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다시금 의무가입이 복원돼 직원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토양이 마련돼 협회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건축사회 고양지역건축사회에서 35년간 근속하며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이미자 사무국장은 5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협회가 임의가입제로 전환되며 협회 및 건축사의 위상과 힘이 약화됐다"며 "다시 의무가입으로 전환된 만큼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계 중심에 서서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고, 건축에 대한 인식 전환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자 국장은 '근무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운 점'에 대해선 "2000년 이전 의무가입 당시에는 건축허가 접수 전 지역건축사회가 수행하는 '설계도서검토제'가 시행됐었다"며 그만큼 지역건축사회가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임의가입으로 변경돼 없어지고, 건축사연금제도 역시 정착되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고 했다. 연금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대신 고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2015년 10월 고양시건축경영협동조합이 설립돼 수익이 창출되고 있어 앞으로 '연금제도'를 대신해 잘 운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자 국장은 회원들의 요구를 가장 빠르게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다름 아닌 지역건축사회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건축사분들은 계속 많아지는 반면, 설계 물량은 감소하고 있고, 건축사보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2000년 전 의무가입으로 다시 돌아간 만큼 건축사 권익이 크게 향상되고, 설계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건축사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역건축사회 활성화를 위한다면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양지역건축사회는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복지시설 자매결연사업 등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비롯한 녹색건축교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 "건축사회와 회원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고양지역건축사회 직원으로 근무하며 공부를 병행해 "대학 건축실내디자인학과와 부동산학사를 전공, 올해 도시계획학 석사 졸업을 한다"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주변 회원분들이 자극이 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인터뷰 말미 함께한 역대 지역건축사회장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초대 회장이신 이재식 회장님의 10년간 임기를 시작으로 2년마다 현 권혁규 회장님까지 열세 분을 보좌했어요. 처음 10명의 회원에서 현재 132명 회원이 되기까지 함께 한 모든 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영호 기자

독자한마당

설계공모의 본질을 묻다 - 심사편

장우진 건축사
더블유제이건축사사무소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실효성 의문
현실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심사위원장 선출도 심사권 없는
전문 건축사 사회자가
주관하는 건 어떨까

수많은 나라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부정부패가 판치는 세상은 망국의 길이었다. 이권과 반칙, 불공정한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공정하며 공정을 위해 여러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지연과 학연, 로비에 의해 작품이 결정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건축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개선될까? 힘들 테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로비는 알게 모르게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관행이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설계비가 걸린 설계공모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그렇다고 작은 공모도 예외는 아니다. 로비할 여력이 없는 사무실은 할 수가 없다. 돈이 돈을 낳기 때문에 자본주의 현실에서 로비는 홍보라는 그럴듯한 명칭으로 포장되어 회사 조직 내에서 홍보부서가 존재한다. 홍보는 부서 중 가장 힘을 가진 가가 된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3박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로비와 작품, 그리고 운이 좋아야 당선이 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온다. 큰 판이 깔리면 수많은 네트워크로 인맥이 총동원된다. 어떻게든 찾아내고 찾아간다. 그것이 회사의 실력이고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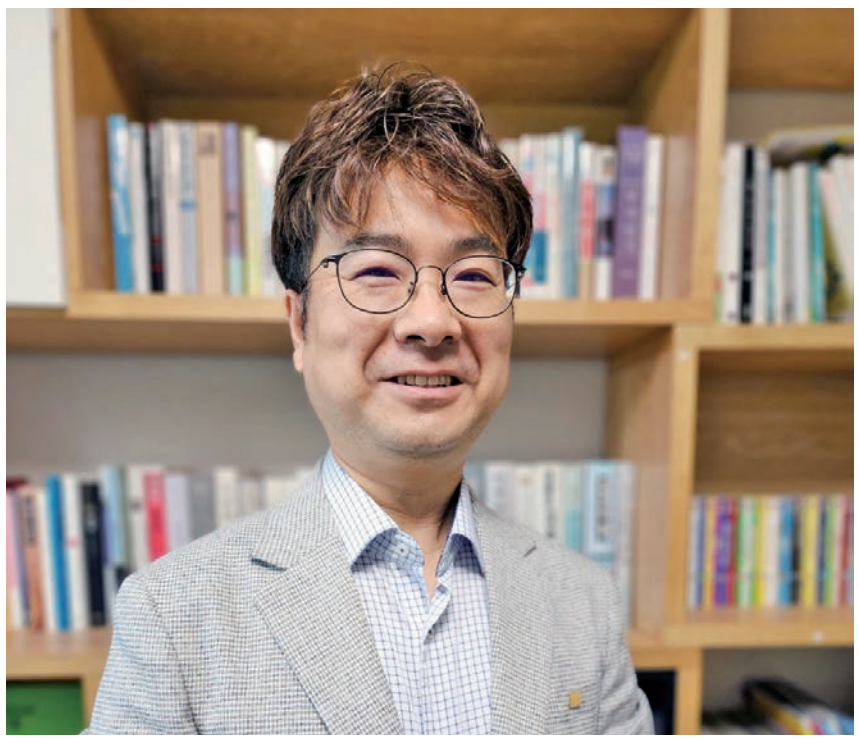
대학 입학 수능 출제위원은 합숙하며 세상과 단절되지만,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 참여업체의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작성과 별도로 여력이 되면 찾아가 청탁을 부탁한다. 공공건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평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력과 여력이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펼칠 수 있는 회사가 당선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출발선이 편파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공정하게 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와 법은 없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고쳐도 부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남의 일처럼 뒷짐지며 물러설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건축사의 본문을 지키고자 할 때 조금씩 개선되어 건축의 역사는 진보될 것이다.

제도와 의식 수준을 교육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구 개발해야 한다. 창의적인 건축사들의 공정한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건축이 튼실해지고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발휘하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 및 참여업체의 통화내역과 통장내역을 조사한다고 한들 청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신고보상금을 많이 준다 한들 비리를 캐는 전문가, 누군가의 돈벌이로 전락할 것이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면 피할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다. 참으로 어렵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전접촉금지서약서의 실효성이 있는지 자문해 본다.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심사위원장 선출도 심사권이 없는 전문 건축사 사회자가 주관하는 것은 어떨까? 현재 심사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주관한다. 공정한 토론의 장으로 심사를 이끌 수 있는 심사진행 사회자가 객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돼야 한다. 본심사 시 질의 없이 사전질의로 대체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질의 시간도 참여업체마다 다르다. 업체마다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활용 시간이 다르다. 주어진 시간을 다 쓰는 업체가 있고 질문이 없는 업체도 있다. 사전질의를 통해 문서로 주고받는 방법이 나을 것이다. 건축설계공모에 공정한 심사가 자리를 잡아 대한민국 설계 공모의 혁신으로 나아가 이 땅 위에 건축사의 창의성과 노력이 빛나는 건축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원승연 건축사(인천광역시건축사회)

원승연 건축사 "더 나은 건축문화 조성과 건축이 종합예술로 자리매김 하도록 힘 보탤 것"



원승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나우원) 사진=원승연 건축사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건축사야말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꿈의 설계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만 하던 집이 현실이 되도록 건축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집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그 공간만이 가지는 가치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죠. 생각을 나누면서 이상적인 집을 만들어가는 게 건축사의 역할이니까요. 그만큼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할 분들의 생활패턴도 확인하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집중하는 편입니다. 설계 이후 시공과 자재 선택을 할 때에도 전문가와 의견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승연(건축사사무소 나우원) 건축사는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간의 의미를 담아내며, 누군가가 바랐던 이상향을 직접 만들어가는 일에 가치를 만들어 가는 원승연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 사무소 개소 소감과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사무소를 개소한 지 일 년여가 지났습니다. 사무소명은 여러 가지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NOW를 넣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축에 대한 마음은 유년시절의 일입니다. 제가 건축을 하기 전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불법행위로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건물은 건축 행위 다음에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소를 개소했던 마음, 건축주와 상담하고 계약했던 그 마음 등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개소 당시에 다짐했던 '진정성 있게 행동하고 건축주와 진심을 나누자'는 마음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의무 가입이 올해를 기해 완성 되는데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건축사야말로 종합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건축물이 획일적인 주거용 공동 주택에 치중되는 게 다소 안타깝습니다.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한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와 시대적 흐름을 담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가 우리 건축문화의 제자리를 찾고, 더 나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이자 회원의 한 사람으로, 건축이 종합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한 행정복지센터 현상공모 2등 당선작. 원승연 건축사는 자연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우러진 행정복지센터를 제안했다. 사진=원승연 건축사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안타깝게도 최근 건설 사고가 연달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건축법이 이전보다 더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각 단계별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각기 다른 행정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사, 건축주, 행정부서 등이 모두 만족할 만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와 행정 부서가 협력해 현행보다 단순화된 시스템과 원스톱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등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건축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빈부 격차를 가속화한 만큼 건축사사무소 역시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규모 사무소나 1인 건축사는 상생하고 협력하며 방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여러 세대의 건축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30대, 40대, 50대 건축사가 소속된 사무소 3곳과 함께 공유 프로젝트와 공모 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대별로 느끼는 생각과 정보를 공유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선배 건축사의 경험과 후배 건축사의 패기와 열정으로 헤쳐 나가는 희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아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주)씨엠엑스 업무협약
건축 현장 공사감리 디지털 전환 위한 기술협력 '맞손'

건축사 업무 디지털 전환 협력 나서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5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씨앰엑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5월 19일 (주)씨엠엑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건축과 건축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건축 생애 관리 디지털화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함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본협회 석정훈 회장을 비롯해 권연하, 정태화, 박성준 부회장과 씨엠엑스 이기상 대표이사, 류성호 상무, 정건민 수석이 참석했다.

석정훈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건축현장 공사감리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해 건축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선진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또한 협회와 씨앰엑스가 동반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씨앰엑스 이기상 대표이사도 "이번 협약으로 건축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아라 기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안내

2023년도 현재 관리받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력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 납부방법**
- ㅇ **온라인 :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홈페이지(work.kira.or.kr)**
  건설기술인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cert.kira.or.kr)
- ㅇ **오프라인 : 본 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통한 납부**

□ **미납자에 대한 제재**

2012년도 이전의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기관리자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 ㅇ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ㅇ 타 수탁기관 이관 및 경력수정, 경정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 ㅇ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 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수상 그 후 ㉒

2022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지산돌집'

도시와 자연 사이 특이한 삼각형 모양 돌집

좁은 부지와 경관 해석 과제, '흐름'을 키워드로 훌륭히 풀어

해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탁월한 작품을 선정해 건축상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기마다 건축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스물두 번째 작품은 2022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지산돌집'이다.

2022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지산돌집' 〈설계자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사진=윤준환

건축물은 자연과 도심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명산(名山) 무등산과 광주 도심의 경계, 좁은 삼각형 부지 위에 지어진 집. 외벽에 쌓인 파주석이 눈길을 끄는 이 집은 2022년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지산돌집'이다. 좁은 부지의 모습은 앞서 이 지면을 통해 소개했던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부문 우수상 수상작 '소슴당인'과 상당히 닮아있다. 다른 점이라면 '지산돌집'이 위치한 곳은 빼곡한 저층 주거지 속 어딘가가 아니라 무등산의 자연과 도시의 분주함 사이라는 것.

건축주 이정윤 씨 부부는 이 부지에 무등산 자락과 가까운 이 대지에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집을 짓기로 하고 임태형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플랜)를 찾았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열려 있으면서도 부부 각자의 사생활도 보장되는 공간. 임 건축사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기본적인 주거 기능도 갖춰야 함은 물론이었다.

임 건축사는 설계를 시작하며 크게 두 가지 과제를 풀어야 했다고 회고한다. 과제 중 하나는 의뢰받은 프로젝트 중 부지면적이 가장 협소한 사례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등산 초입 미관지구에 속해있는 집의 경관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건축사는 이 과제를 '흐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냈다. 1층부터 옥상까지 공간의 시퀀스를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경관 해석의 문제도 집이 자연스럽게 자연과 도심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해답에 접근했다. 사생활 보장에도 신경 쓰면서도 여러 장치를 통해 외부와 이어지는 느낌을 훌륭히 구현해 냈다.

임 건축사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적 정취에 몰입되고, 옥상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개방감 속에서 다시 세계와 연결되는 설계 의도를 체감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집의 외벽은 단단한 자연석인 파주석으로 처리했다. 건물의 외벽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거주자에게, "외부로부터 구분된다"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에 신경썼다. 파주석으로 쌓아 올린 외벽은, 거리에서 보면 마치 자연의 한 부분으로 느껴져 풍경이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내부는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해 날 것의 느낌을 유지했으며 천연 목재 소재의 붙박이 가구는 외부의 자연이 실내까지 이어진 듯한 분위기를 만든다. 설계하면서 가구도 함께 디자인해 건축물 설계와 공간구성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건축주 이정윤 선생은 "직접 주택을 지으니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 좋다"라면서 "집 안에서도 무등산의 정취와 풍광을 매일 느낄 수 있는 점도 참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좁은 부지의 한계를 가능성으로 바꾼 지산돌집 설계자 임태형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임태형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임태형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Q. '지산돌집'을 설계하시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계 의뢰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지나는 무등산 입구 길에 차를 타고 가며 보게 된 좁고 흥미로웠던 부지의 '매매' 푯말을 보고 사진으로 담아두었는데요. 바로 1주일 후에 건축주가 집을 짓겠다며 보여준 부지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날 바로 부지 매입과 설계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당시까지 의뢰받은 프로젝트 중에 부지면적이 가장 협소한 사례로서 공간적 한계 극복 방안과 무등산 초입 미관지구에 속해있는 집의 경관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다란 질문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Q.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요?

네 개 층으로 이뤄진 내부 공간의 시퀀스를 단편적으로 끊어가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다채로운 공간구성이 연출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스킵한 공간과 가변적 구획, 붙박이 가구, 프레임이 없는 창호가 주는 디테일, 적재적소에 배치한 시선 창 계획 등도 공간의 개방성 극대화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려 했습니다. 거주자에게 있어 집의 경관은 도시(전체)에서 집(일부)으로 집(일부)에서 다시 도시(전체)로 관점이 전환되는 일련의 순환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퀀스를 망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적 정취에 몰입되고, 옥상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개방감 속에서 다시 세계와 연결되는 설계 의도를 체감하게 됩니다.

주변을 빠르게 지나치는 순간에도 부정형 자연석(파주석)의 거친 질감을 통해 자연과 도시의 경계로서 이 집이 인식되기를 바랐습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건축주께서 부지를 구입했던 시점에는 미관지구 후퇴선과 통과도로의 소요 폭 미달로 인한 면적손실을 예상하실 수 없었습니다. 설계 착수 후 법규검토 단계에서 초기 예상보다 많이 협소해진 땅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최초에 염두에 두었던 생활조건들을 모두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평면이나 단면적 레이아웃을 매우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애초 협소 주택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막상 설계에 돌입하고 나서는 '과연 무언가에 대한 결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거주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건축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사용자의 의견이 조화를 이룰 때 훌륭한 결과를 냅니다. 둘 중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력이 상실되고 이는 곧 완성도 부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시작하며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잘 맞추는 것에 지향점을 뒀습니다.

지산돌집의 경우 특정 소재나 공간의 분위기 그리고 기호적 측면에서는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과 안배, 적용의 수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판단과 이에 따른 결과물로 설계 전반의 정합성을 획득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산돌집은 제가 처음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한 재료들이 대거 등장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결과물에 대해, 남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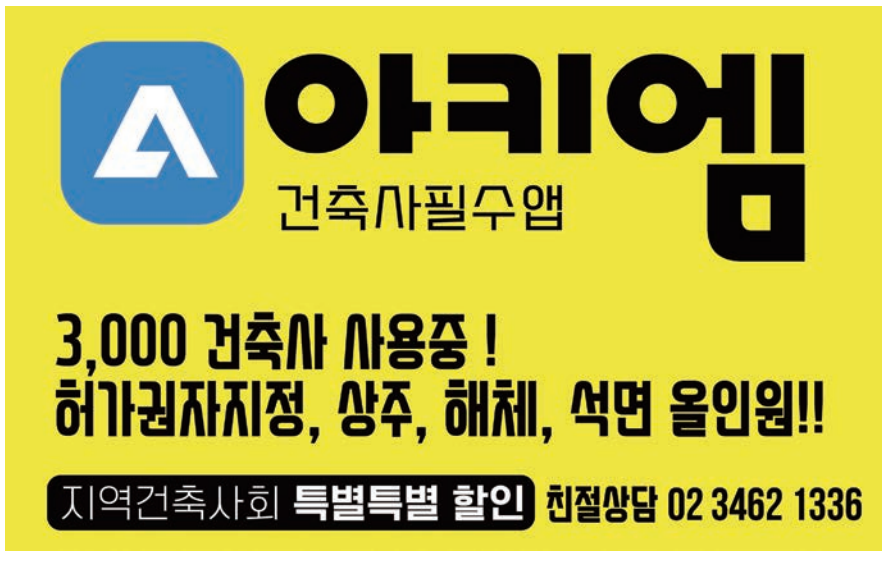
외관에서 지배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연석(파주석)의 사용과 실내 마감에서 전체적인 노출콘크리트 마감이 특히 그러했으며, 특정 개구부의 느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만들어낸 최종적인 집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안착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석재는 단순하게 하나의 집에 사용된 개인적 기호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도시와 자연의 경계, 미관지구라는 도시적 맥락에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 아이디어와 난립하는 요구 조건들의 무질서를 수용하여 건축사가 의도하는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에는 하나의 개념을 획득해 내는 과정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Q. 이번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내부와 외부, 가구와 건축의 일관성, 기성품과 수공예적 만듦새의 조화로움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디테일과 구성적인 부분을 고민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절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좋은 자극이자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심사에 반영되어 나름의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광주광역시)에서는 협소주택의 범주에 이렇다 할 작품이 출현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건축문화의 다양성에 일조하게 되어 보람이 큽니다.

Q. 근래 들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큰 틀에서는 외적 간결함 속에서 내적 깊이감이 추구해 내는 방식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관심사로서는 경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관성적 작법을 탈피하고자 매 순간 고민합니다.



'건축사의 고민·시간 담은 함축적 이미지'…건축 사진가 김용관 전시회

건축 사진가 김용관의 사진전 '관계의 기록, 풍경으로의 건축'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오는 8월 6일까지 진행된다.

건축 사진은 역사성, 문화성, 예술성을 지닌 건축물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의미를 형성하는데 깊숙이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김용관 작가는 건축물을 하나의 독립적인 오브제나 사물이 아닌 자연과 도시 속에서 주변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는 생동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는 작가 노트를 통해 "내가 찍는 사진은 나의 직업이자 나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건물을 디자인하는 건축사의 고민과 시간을 담아낸 함축적 이미지이기도 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온전히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은 주변의 수많은 관계를 통해 탄생하듯 나의 작업도 관계에서 출발한다"며 "관계야말로 건축이 가진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것을 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기자

주목! KIRA 건축추천자재업체

호야홈텍 이정택 전무, “층간소음 줄이는 호야온돌로 우리 건축문화 세계화 앞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로 ‘호야온돌’ 개발

탄소복합소재 건식난방으로 열전도와 축열성, 30년 내구성도 확보

“설계단계 호야온돌 반영 위해 건축사 이해 돕고, 접점 확대해 나갈 것”

이정택 호야홈텍 전무

▶ 습식방식과 호야온돌 비교

구분	습식방식	호야온돌
압축강도(kg/㎠)	142	244
단면 두께(mm)	80	26
㎡당 중량(kg)	120	17
100제곱미터(30평) 공사기간(일)	12	2
100제곱미터 공사비(원)(평당 공사비)	6,300,000(210,000)	6,300,000(210,000)
시공성	어렵고 복잡	쉽고 간단
열전도·축열성	보통	높음
난방비	보통	20% 절감

국내 주택 대부분의 바닥난방은 습식방식이다. 하지만 레미콘 가격 인상과 기능공 부족 등으로 공사비용과 품질관리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호야홈텍의 호야온돌이 난방수단으로서 기존 습식난방을 대체하고, 획기적인 공사비용 절감을 통해 온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정택 호야홈텍 전무는 “국내 공동주택에 건식 바닥난방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자 하며, 나아가 우리 전통건축문화인 온돌을 세계화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건축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며 호야온돌 보급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이정택 전무를 만나봤다.

Q. 최근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건축자재로 선정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는데, 어떤 제품이 선정됐는지 소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온돌을 탄소복합소재로 재탄생 시킨 건식난방 제품인 호야온돌이 이번에 대한건축사협회 추천건축자재로 선정됐습니다. 호야온돌은 기존 건식난방 자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개발해 시멘트를 사용한 습식방식을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식난방에 있어 기술적 이슈로 지적되던 열전도성과 축열성을 해결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곱미터 당 중량이 17킬로그램에 불과하고, 단면도 26밀리미터로 습식방식과 비교하면 기초공사비의 절감, 실내공간 확보라는 비교 우위 경쟁력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조주택, 한옥, 단독주택을 비롯해 유치원, 요양원, 공장 기숙사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충재 개발에 성공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양질의 제품을 개발해도 건축사 및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릴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추천자재로 선정되면서 건축사 여러분과의 접점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Q. 숙련공 부족으로 바닥난방 자재 적용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건식난방’으로의 전환이 눈에 띕니다. 호야온돌의 기술력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호야온돌의 모회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한 비즈니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러시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추운 기후임에도 라디에이터 난방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온돌 수출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고, 호야온돌의 제품개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문제는 국내에서도 숙련공이 부족한 현실인 탓에 습식방식의 수출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단점을 모두 개선하고 효율을 극대화한 건식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호야온돌은 기존 건·습식 제품과 비교해 소재부터가 다른데요. 탄소광물과 폴리플로필렌(PP)을 원재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의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전자동 시스템 생산라인에서 압출과 사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패널은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2~3일 내 완료됩니다. 인건비와 품질관리,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친환경마크를 2개나 획득할 수 있게 된 탄소광물에는 맥반석이 포함돼 원적외선이 방출되면서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탄소광물의 복사열로 습식방식에 비해 난방비 역시 20% 이상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호야온돌 덕분에 해외에서도 바닥 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실적과 함께 수출을 위한 글로벌 유통 노하우 등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러시아에 첫 수출을 한 이래로 미국과 일본, 유럽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캐나다와 폴란드 수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전통 온돌(바닥난방)에 대한 해외에서의 호감과 선호도가 증가했습니다. 이후 해외시장을 주된 타깃으로 제품개발이 이뤄진 호야온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죠. 현재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 바닥난방이 꽤 알려진 상태이고, 목조주택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바닥난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주지역에서는 온돌이 그리운 교민들 사이에서 건식 온돌인 호야온돌에 대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가구 등 집기들을 이사하지 않고도 온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는 모습입니다. 호야온돌은 짐을 잠시만 옆방으로 이동해 놓는 것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 살림살이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제곱미터(30평) 기준으로 기술자 1명, 일반인 3명이면 이틀 작업으로 시공이 끝나며, 이 같은 시공편의성에 해외에서는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호야온돌 입체도

매출액 기준 2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해외수출 규모도, 올해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점차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기술개발 방향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 부탁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2년여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호야온돌은 사실 현재 기준으로 기술력 정점에 다다른 제품입니다. 다만, 온돌의 부자재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완충재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속 전개될 예정이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관건인 만큼 원가 절감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해외 마케팅 역량 확대, 대학 등 연구집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학계 검증,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바닥난방 보수공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건설사와의 협업도 괄목할 만합니다. 현대건설과는 협약서 체결 후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완충재 공동개발 등을 목표로 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GS건설과는 모듈러주택에 호야온돌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만간 성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에서의 호야온돌 반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해 많은 건축사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며, 이외에도 건축사, 소비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등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한 소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수출 등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월 20만 세트(모듈) 생산 규모의 공장과 더불어 장항산업단지에 추가 공장부지를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품질관리의 어려움, 기능공 부족 등의 이유로 온돌이 경쟁력을 잃는 것을 막고, 우리 우수한 건축문화를 세계 속에 꽃피우기 위해서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박관희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누구나 손쉽게 규제 애로사항 건의 가능…14일 내 회신으로 처리 속도 높여

국무조정실이 협회,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규제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부처·지자체마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건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속도감 있는 해결이 가능하다.

규제 개혁 신문고에 의견을 제출하면, 소관 부처는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뒤 14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소명이 필요할 시 3개월 내로 진행되며 해당 부처에서 재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다.

접수방법은 규제 개혁 신문고 누리집(https://www.sinmungo.go.kr), 이메일(simungo@korea.kr),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법제정책처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 별도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마련하는 만큼 건축 분야 역시 회원들이 참여해 규제를 위한 규제 또는 건축사의 업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한옥문화원, 대들보와 우미량 전통방식으로 가공짜맞춤 교육 실시

무형문화재 이연훈 대목장과 호흡하며 교육 이뤄져

전통건축에서 상징성이 큰 대들보와 우미량을 가공해 짜맞춤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전통의 방식을 따라 이뤄지는 교육은 현대인들에게 전통의 원형에 담긴 건축정신과 농축된 지혜, 천연한 조형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경험하는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옥문화원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대들보와 우미량 전통방식 가공, 짜맞춤 조립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원목의 탈피부터 ▲치목 ▲맞춤 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전통기법과 전통공구를 사용해 이뤄지고, 제재소에서 가공되지 않은 산판에서 벌목한 원목 소나무를 재료로 사용한다.

6월 30일 진행되는 1일차 교육에서는 벌목한 육송(국산 소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대들보를 치목한다. 2일차에는 우미량을 치목하고, 3일차에는 우미량과 대들보를 맞춤 조립한다.

이번 교육의 강의를 맡아줄 강사는 충청북도지정 무형문화재대목장 기능보유자인 이연훈 대목장이다. 교육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이연훈 대목장 치목장에서 진행되며, 설계자, 건축 전공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교육대상이 된다.

이연훈 대목장은 "기능은 물론 전통건축의 준비에서 마감에 이르는 과정에 담긴 정신까지를 전하는 것이 기능보유자로서의 의무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대하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들보와 우미량 가공 및 짜맞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중 중식도 제공된다. 모집정원은 30명, 3인 1조로 교육이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옥문화원 02)741-7441, 누리집(www.hanok.org)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박관희 기자

아키소프트 '아키캐드' 7월 말까지 프로모션 진행…풀 버전 구매 시 본협회비 1년간 지원

아키캐드, 건축 디자이너 BIM 전용 소프트웨어

OPEN BIM을 지원, 매년 새로운 버전 출시

사진=아키소프트

그라피소프트(GRAPHISOFT)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인 아키소프트가 협회 공동구매 입점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키캐드 풀 버전 구매 시 본 협회 월정회비를 1년 지원한다.

아키캐드는 1982년 개발된 건축 디자이너 BIM 전용 소프트웨어다. 건물의 건축, 구조, MEP, 간섭검토, 물량산출, 에너지 평가, 렌더링 등 건축 설계 디자인에 필요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와 협업, 투명성, 건물 수명 및 데이터 접근성을 위해 OPEN BIM을 지원하며 매년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있다.

아키소프트 관계자는 "아키캐드는 최초 개발 이후부터 매년 설계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해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사와 기업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 건축사업계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업무지원 누리집(kirahub.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서울시 건축상 공모…공공·민간부문 9작품, 시민공감특별상 2작품 선정

7월 수상작 선정…9월 건축문화제 기간에 시상식

▶ 시상규모(건축상 9작품, 시민공감특별상 2작품)

구 분	공공건축	민간건축
대상 (총 1작품)	1작품	
최우수상 (총 2작품)	1작품	1작품
우수상 (총 6작품)	3작품	3작품
시민공감 특별상	2작품	

서울시가 6월 9일까지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공모, 7월 수상작을 선정하고, 9월 예정된 건축문화제 기간 중 시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두 개의 분야로 개편해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건축사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서울의 위상을 높여 줄 건축물을 선정하게 된다.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참가는 대표 건축사 또는 설계자가 자신의 건축물을 직접 응모하거나 제3자가 추천하면 된다. 3년 이내 사용승인 받은 서울 시내 소재 건축물이라면 응모 가능하고, 최초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건축물도 포함된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며,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부문, 총 9개의 건축상을 오는 7월 최종 선정한다. 시민투표를 통해 건축상 부문 수상후보에 오른 9작품 중 최다 득표한 2개 작품에는 '시민공감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예술성, 공공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설계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우수한 건축문화 실현에 참여해 준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명 기재)이 함께 전달된다. 제41호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건축문화제 누리집(www.saf.kr)또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상 공모와 함께 진행되는 '서울건축문화제'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다양한 건축 이야기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전시 ▲제4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 ▲연계사업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관희 기자

책꽂이

서른 가지 수종의 활용법 담은 목재 실용 안내서 '세상의 나무' 출간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수종 서른 가지를 주제로 한 목재 실용 에세이가 출간됐다.

'세상의 나무'는 목재를 다루는 실무적 입장에서 풀어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그간 출간된 목재 관련 도서는 수종에 따른 목재 사용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관성적 사례나 실무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목재와 관련된 학술 자료에 비해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 실용 정보에 한계도 있었다.

저자는 건축과 가구에 널리 쓰이는 목재 서른 수종의 특성과 실제 적용을 위한 기초 안내에 중점을 뒀다. 또한 캐나다, 미국, 남미, 유럽 등 해외 목재협회의 수종에 따른 특성화 자료를 취합·분석했으며, 국내의 건축과 인테리어, 가구에 있어 목재 사용의 사전 및 사후 경과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같은 수종이라고 해도 지역과 환경, 건조 및 관리, 제작 기술에 따라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책에 서술된 내용이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대행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탭 참조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중 · 초급 : 70시간 - 특 · 고급 : 105시간
품질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직무구분		이수대상	이수시간
설계·시공		특급 건설기술인 /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부회장 및 신임 임원 선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담보할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지난 4월 18일 서울시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이사회에서 부회장 호선 및 선임부회장 승인이 이뤄졌다.

회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기존 3인의 부회장 중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 절차를 거쳐 김진홍 부회장이 선임부회장으로, 제20조 제2항에 의거, 이사 중 김동규·이정용 이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서울시건축사회는 5명의 부회장과 19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2023년도 주요 추진사업 및 정책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위원회도 윤곽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4월 27일에는 2023년도 정책 설명 및 주요 사업 추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각 위원회 위원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2023년 이사회 구성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4월 13일에 제57회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신임임원 9인과 대의원 28인의 임명식을 갖고,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2023년 신임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강미숙 외무부회장(주.중앙 건축사사무소, 연임) ▲신임이사: 송세길(건축사사무소 일원, 연임) 추동엽(주.씨앤에이 건축사사무소), 이병주(주.네오 종합건축사사무소, 연임), 주명구(주.건축사사무소 지선재, 연임), 조은숙(건축사사무소 더존), 박명석(이지건축 건축사사무소) 김정화(김정화 건축사사무소), 정은주(시아 건축사사무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20일 부상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를 주제로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부산시건축사회원 260여 명이 참석했다. 외부강사로는 김원술 국토안전관리원 ESG경영실 부장을 초청했으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및 건설(해체)공사 안전 정책 동향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전호동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지원팀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설명회'도 진행됐다.

부산시건축사회와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는 작년 12월게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재해 제로화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실무교육은 양 기관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 교육이다. 강미숙 부산시건축사회 부회장은 "오늘 강의를 위해 멀리서 와주신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강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임원 및 위원장 워크숍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26~27일 양일간 호텔 에밀리아에서 대구시건축사회 임원과 위원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추승연 경북대 교수의 인공지능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의 건축행정 및 협조사항 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대구시건축사회에서 시행하는 민원업무와 주요 정책에 대한 안내, 위원회 업무 소개가 진행됐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건축사 업무지원시스템' 안내와 그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도 논의됐다.

석한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협회 정책에 대해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는 협회 운영 방향의 일환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임원, 위원장과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5월 3일 아현정에서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년 5월 이후 신규 입회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대구시건축사회 소개와 업무에 필요한 각종 법령·제도, 건축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 신입회원들 상호간 소개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석한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신입 회원들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신입 회원들이 서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2023년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5월 17일 인천건축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3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입회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는 신입회원 14명이 참석해 인천건축사회 집행부 임원들과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신입회원들은 건축사사무소 명칭에 대한 의미와 건축사로서의 포부를 공유했다. 김장섭 인천시건축사회장은 "인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해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며 "신입회원 여러분이 인천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집행부에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위원회 통합워크숍 개최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5월 9일 대전 선샤인호텔 3층 오아시스홀에서 위원회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박태식 대전시건축사회장과 임원,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와 화합으로 하나되는 협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연간 사업계획 보고 ▲대전시건축사회 연간업무보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위원회 간의 소통,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전광역시정책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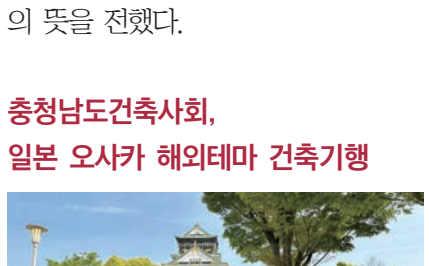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 합동점검반 구성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27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영남권건축사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함께하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제2회 건설안전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남권건축사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례간담회 추진 ▲영남스마트건설안전 카카오채널 공유 홍보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사 실무교육 연계 실시 ▲건축문화제 시 건설안전 체험부스 운영 등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5월 10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안전 합동점검반 위촉식을 가지고 점검 일정을 협의키로 했으며, 울산광역시건축사회 10명의 건축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울산지역의 건설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청북도건축사회, 사랑나눔지원센터에 쌀 20포 기부



충청북도건축사회는 5월 9일 외국인 근로자 사랑나눔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쌀 20포를 전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랑나눔지원센터는 충청북도건축사회 소속 오정교 건축사(성은 건축사사무소)와 김수희 목사가 함께 이끌고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이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급식부터, 쉼터 제공, 한글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정운기 충북건축사회장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 교육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오정교 건축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일본 오사카 해외테마 건축기행

충청남도건축사회는 2023 해외테마건축기행 1차 기행지로 일본 오사카를 선정,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건축기행을 진행했다. 충남건축사회 소속 3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여한 이번 기행에서는, 일본의 메모리얼파크와 메리켄공원,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 오사카성, 동대사, 아스카데라절 등을 방문하며 현지 문화와 건축물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코로나로 답답했던 일상을 뒤로 하고 일본의 전통과 역사적인 건축물 답사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일본 도쿄 해외테마 건축기행

충청남도건축사회는 2023 해외테마건축기행 2차 기행지로 일본 도쿄를 선정,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건축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테마 건축기행에는 충남건축사회 소속 회원 및 가족 20여 명이 함께했다.

기행에서는 아사쿠사 관음사, 나카세 도오리, 후지산, 물위에 세워진 하네코신사, 빨간벽돌로 지은 창고를 이용해 만든 아카렝가, 번화가인 신주쿠와 도쿄도청, 신쇼우지 불교 사찰 등을 답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일본의 전통건축방식과 근대적인 건축방식, 현대적인 건축양식을 다방면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릉지역건축사회, 강릉산불피해 주민 돕기 성금 전달

강원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가 지난 5월 18일 강릉시청을 방문해 강릉 산불피해 주민 돕기 성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전달했다. 조정희 강릉지역건축사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건축사회는 지역건축사회 별로 모금된 성금을 5월 중 강릉시청에 기탁할 예정이다.

순천지역건축사회, 이사회 및 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21일 전북 진안에서 22명의 임원과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 및 발전·법제·교육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위원회의 올해 계획과 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85명의 회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한 단합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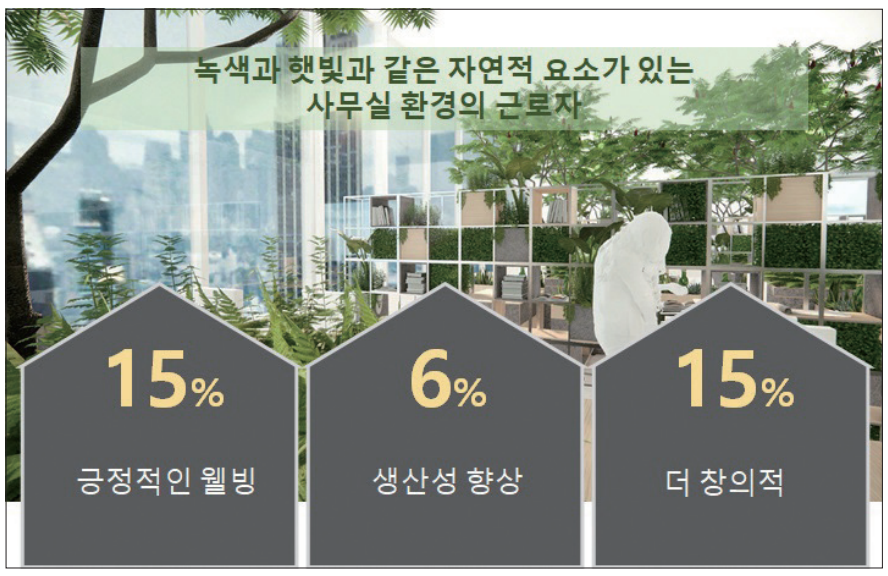
편집출판팀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환경부 환경 마크 획득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우수건축자재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목조건축 산책

이동흔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자연과 건축물의 연결 ②
목조건축에서 돈이 나온다



자연 요소를 건물 내부로 가져왔을 때의 효과

40개월 만에 코로나로부터 해방된다. 엔데믹 이후 건강과 행복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일하고 쉬고 노는 환경에다 자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목재가 주는 따뜻함, 편안함, 그리고 휴식의 효과가 건축과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자연과 연결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목재와 결합하면서 건축 공간은 낭만적이고 자연적인 공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의 심리적인 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목재는 자연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재료로 정신적 회복과 일상 활동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웰빙(well-being)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 팬데믹 때, 사업주들이 직장 내 건강 악화가 작업 손실로 이어져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을까를 가장 우려했다고 한다. 실제 영국에서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에 연간 약 290억 파운드(48조4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연 요소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6% 향상하고, 긍정적인 웰빙이 15%가 상승하며, 창의성이 15%가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1] 자연과의 가시적인 연결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자연을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재현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과 실제로 접촉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에너지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2]

목재는 자연과 연결된 디자인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목재는 건물의 구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양과 미학을 반영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를 목조건축에 반영하면서 "목조건축에서 돈이 나온다"라고 건축주와 투자자들은 반기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 건물의 수요가 치솟으면서 일반 건물보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녹색 프리미엄'도 최근 뚜렷해지고 있다.[3]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리드(LEED)·브리암(BREEAM) 같은 지속가능성 인증 사무실 건물이 2022년 파리에서는 35%, 런던에서는 25% 더 비싸게 팔렸다. 이제 목재를 반영한 친환경 건축물은 높은 임대료와 임대 수요는 매매가로 연결되고 있다.

건물 내부 목재사용으로
자연에서 시간 보내는 것과 같은
생리적, 심리적 이점 있어

건물 내부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효과를 모방하는 분명한 생리적, 심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목재가 사람들에게 주는 자연적인 따뜻함과 편안함의 느낌은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며,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항하는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도 챙겨주고 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 환경으로 옮겨올 것으로 예측한다. 건축 분야의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곳이 목조건축을 통해 자연과 연결하는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1) https://www.linkedin.com/pulse/top-facts-biophilic-design-guy-stanley
2) Kjellgren, A., & Buhrkall, H. (2010). A comparison of the restorative effect of a natural environment with that of a simulated natural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464-472.
3) 조선일보 Weekly Biz (2023.02.23.) '탄소 제로 빌딩'이면 35% 더 비싸게 팔리네..., 건물에도 '녹색 프리미엄'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나눔공원, 김수환(金壽煥) 추기경 생가

故 김수환 추기경 생가

중앙고속도로 군위IC에서 내려 군위읍을 지나 금성면 방면으로 약 3㎞를 가면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가 있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이 나온다. 사랑과 나눔공원은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계승하고자 추기경의 생가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 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

김수환(金壽煥, 1922년 7월 2일 ~ 2009년 2월 16일)은 대한민국의 천주교 성직자이자 사회운동가이다.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되었고 본관은 광산, 세례명은 스테파노이며 아호는 옹기이다.

한국 가톨릭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수십 년간 군부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인권의 수호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공동선의 추구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신앙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로마교구의 '산 펠리체 다 칸탈리체 첸토첼레 성당' 명예주임사제직의 사제급 추기경이었다.

김수환은 대구 도심인 남산동에서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김수환의 할아버지인 김익현은 천주교를 신봉하다가 1868년에 발생한 '무진 박해'로 인해 연산에서 관군에게 잡혀 순교하였을 만큼 집안이 대대로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었다.

김수환이 사제로서 첫 사목 생활을 시작한 곳은 안동성당이었다. 이후 김천시 황금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겸 성의중고등학교장을 지냈으며, 1966년 마산교구가 설정됨과 동시에 마산교구장으로 임명되었고 주교가 되었다.

1968년 제12대 서울 대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대주교가 되었으며,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되었다. 서울 대교구장 취임사에서 '교회의 높은 담을 헐고 사회 속에 교회를 심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교회 쇄신과 현실참여 원칙에 따라 가난하고 봉사하는 교회, 한국의 역사 현실에 동참하는 교회상을 제시하였다. 또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선의 추구'를 사회 교리로 주장하였다. 취임사와 사회 교리로 인해 젊은 지식인들과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이후 시국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영향을 미쳤다.

김수환 추기경은 2009년 2월 16일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선종(善終)하였다.

사랑과 나눔공원

사랑과 나눔공원 도로변 주차장 입구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미소가 깃든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입구를 따라 경사진 곳을 오르면 필로티를 지나 중앙광장이 나오며 광장을 감싸 안으며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 전면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아호였던 '옹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옹기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박해와 신앙의 상징이었다. 박해를 피해 산으로 숨어든 신자들은 옹기를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김수환 추기경의 부모도 그렇게 신앙을 지킨 가난한 옹기장수였다. 그의 삶은 음식도 담고 오물도 담는 옹기를 그대로 닮았다.

김수환 추기경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신앙을 키웠던 생가의 바로 앞에는 옹기가마와 우물이 있다. 생가의 옆으로 '평화의 숲'으로 오르는 십자가를 형상화한 계단이 있으며, 이 계단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태어나서부터 선종하였을 때까지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글말들이 보인다.

공원 내 복원되어있는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는 초가삼간 옛집의 모습에 좁은 툇마루와 낮은 처마가 정감을 더해준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추기경의 삶과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회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추억여행이 될 것이다.

[출처 : 위키백과]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금성로 270

故 김수환 추기경 조형물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발칙한 외침, "가정에 남성성(男性性)을 허(許)하라…!"

건축과 삶

조명철 건축사
토미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과거에 화장실은 가까이 두기엔 꺼려지던 공간이었다. 속담에 '사돈집과 뒷간은 멀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돈집 사이에는 말이 나돌기 쉽고 뒷간은 고약한 냄새가 나므로 멀수록 좋다는 의미였다. 선조의 지혜가 담긴 말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 형편이 어디 그런가? 집집마다 자녀를 한두 명밖에 두지 않다 보니 사촌은커녕 사돈네 식구 말고는 인척이 없어서 사돈집을 가까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인다. 뒷간도 마찬가지다. 생리적 현상이 흠이나 되는 듯 남몰래 처리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욕실 문화가 발달했고 이름도 화장실(化粧室)로 바뀐 지 오래다. '볼일'만 보던 '변소(便所)'가 화장을 하는 방으로 변화하더니 뒷간은 수세식 변기를 앞세워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남성(男性)인 필자는 집안에서 화장실이 편하지 못하다. 소변을 봐야할 때, 공공장소의 화장실에선 소변기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가정에서는 앉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수치심(羞恥心)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오랜만에 인테리어 설계 의뢰가 왔다. 부부와 딸·아들 두 자녀, 이렇게 4인 가족이 사는 빌라를 수리하는, 그래서 해당 집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아내가 의뢰인이었는데 주방의 불편함 해소와 쾌적한 화장실 조성이 가장 큰 희망이라고 했다. 주방은 간단하게 해결될 듯해서 가볍게 넘어갔고 관심은 화장실로 옮겨졌다. 하~얀 욕실, 여느 집에서 볼 수 있는. 필자의 관심은 양변기였다. 짝꿍 소변기 없이 외롭게 있는 양변기. 용기를 내어 아내 의뢰인에게 제안을 했다. 가족의 반이 남성인데 초등학생인 아드님의 남성성(男性性) 교육과 남편분의 가정 내 기(氣)살리기 차원에서 이번에 소변기 하나 설치하자고. 반응은 뜨거웠다. 남편과 아들이 환호했다. 소변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자신이 여학생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까지 했다. 아내 의뢰인은 놀라는 듯 했다. 가정 화장실에 소변기라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 혐오시설이라는 말까지 언급됐다. 남성에게 소변기 없는 현실은 부조리(不條理)인데, 여성에게는 혐오(嫌惡)시설이었던 게다. 그 간극을 남성으로서는 좁힐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다.

가정의 달에 지면을 빌어 여성 건축사분들에게 부탁해본다.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서운해 해서 '어버이 날'로 바꾸는 일을 양해해주셨듯이, 가정 화장실에서 남성들이 생물학적 실질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변기 설치에 해량(海量)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시기를 말이다.

참고자료
1. 김당 기고글 「선암사에 가거든 '뒷간'에 가봐야 하는 까닭」
2. 「물의 세계사」 스티븐 솔로몬, 주경철 안민석 역

시로 보는 세상

섬

- 이하석

부도라는 이름의 섬이 있으리.
바람이 띄운, 바람이 피운, 바람피우는, 섬.
늘 설레어서 갯완두꽃 속 열어놓는.

늘 제 생을 흔들어대는 산부추 같은 이가
제 가장 높은 곳에 띄운 꽃 때문에
매운 멀미를 하는 섬.
파도 위에 낳아놓은 새의 알처럼.

그런 섬이 늘 멀리서 뒤척이며 부른다.
버스도 지하철도 떼어놓고
출렁대는 배를 타고 가서 맞는,
지하철 옆 카페에만 줄창 앉아 있는 당신처럼
사흘 벼려 겨우 마음 내어 닿는 섬.

내 안팎 휘몰아치는 당신의 소문이 뛰운 섬,
사방 흰 파도들이 만나 으르렁대며
떠들어 올리는,
바람이 피워서 갯완두도 속이 열리는.

- 이하석 시집 '연애 間'
문학과지성사/ 2015년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다. 일부러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처럼, 이 시에서는 모든 게 위태롭다. 설레임은 본래 위태로운 것이고, 산부추도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그 꽃은 아름답기 전에 이미 그렇고, 새의 알도, 벼르고 벼르는 당신의 마음도, 소문이 띄웠다는 섬도, 출렁대는 배도, 갯완두도, 그저 위태롭기만 한 정경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다운지도, 그것도 위태롭다. 갯완두의 속명은 'Lathyrus'다. 매우(la)-열정적인(thuros)이라는 뜻이다.

〈함성호·시인〉

| 발 언 대 |

우리 삶의 공간

양정호 건축사
정플러스건축사사무소
〈전라북도건축사회〉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수주를 맡은 건축설계는 2층 규모의 전원주택이었다. 첫 수주인 만큼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열심히 했다. 직원으로 일할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고, 계획·실시설계 업무를 진행하면서 큰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다. 건축주 역시 공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부터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노후를 설계하고, 커가는 손주의 재롱을 보는 행복한 상상을 그리곤 했다. 어느 날인가 함께 저녁식사도 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처음이라는 기억을 선물했다.

필자 역시 학창시절, 집에 대한 부러움과 욕심이 있었다. 작은 집이었고 전세에 살았던 터라, 건축과를 가면 나의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나의 본업이 될 테니까 남들보다는 쉽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렇게 천직으로 알고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집은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자주 언급되는 전세사기 뉴스를 접하다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어떤 이에게는 그 집이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깝고, 또 싫은 공간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다.

서민을 위한다는 전세자금 대출이 누구에게는 사기를 치기 위한 먹잇감이 되었다.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투기가 판을 쳤고, 연쇄적으로 매매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덩달아 전세가도 높아졌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과 은행대출로 수십 채의 아파트를 샀다. 그런 인과관계로 지금 세입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한 친구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을 순 없다고 하더라도, 또 모든 정책이 모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해야 할 일 아니던가.

의식주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이고, 그중에 주(住)는 삶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된다. 그 공간이 안정되고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건축사를 더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진다는 기대가 있을 때, 또 나의 공간과 미래를 위해 고민이 깊어질 때, 설계에 대한 꿈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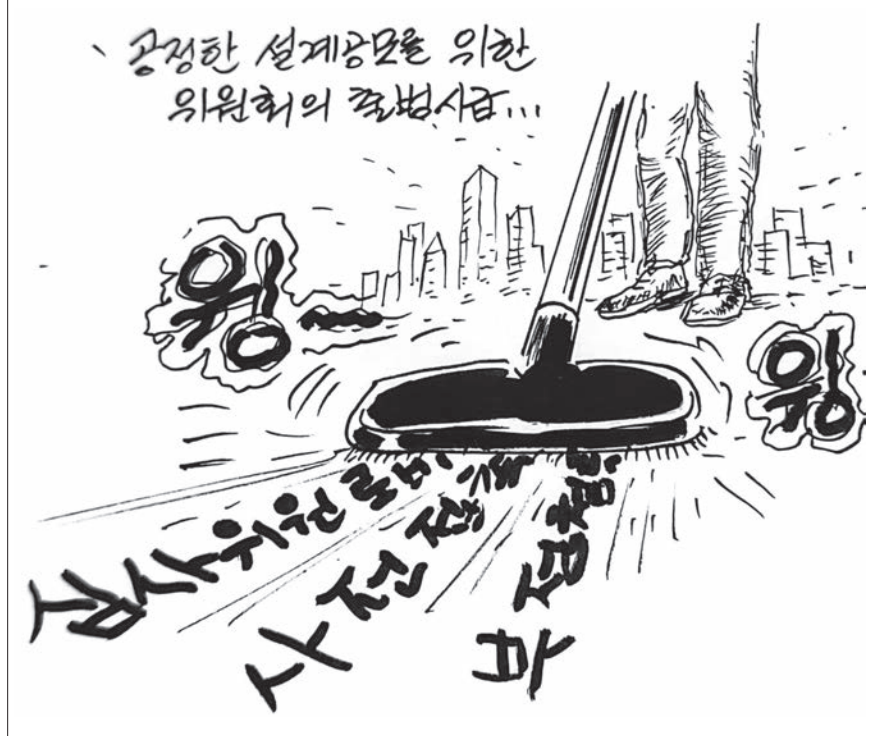
비 오는 경복궁 이야기

비가 내리는 봄날의 경복궁을 찾아갑니다. 그동안의 화창했던 봄의 기운은 사라지고 세찬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궂은날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닙니다. 왕이 정사를 행하던 근정전 옆 행각으로 비를 피하며 지나가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여인들은 색색의 우산과 색색의 한복을 입고 줄지어 나란히 지나갑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조정(朝廷)의 박석(薄石) 위로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강렬한 색상의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이 근정전 행각을 배경으로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익재 건축사 · KN 건축사사무소

건축만평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14,4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7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다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라운지
아카이브 홀
인테리어디자인
공모전

공모내용

사업명 건축사회관 1층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입찰공모

공모일정 2023년 5월 15일(월) – 6월 29일(목)
- 6월 12일(월) _ 사전참가 신청서 접수(이메일)
- 6월 29일(목) _ 제안서 제출(우편, 방문)

참가자격 신진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3년 이하)만 참여

시상금 대한건축사협회장상(1등작) 1,500만 원
가작(2작품) 각 200만 원

제출서류

구분	규 격	내 용	비 고
디자인 제안	A3 제안서 (10매 이내)	평면스케치, 이미지 (손스케치or 스케치업) – 맵핑 하지말것	업체당 1작품 제한
	3년 이내 신진건축사	2020.1.1.이후 사무소 개설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02-3415-6815

KIRA Archive Lounge
Interior Design

대한건축사협회